

성명(姓名)의 행렬자(行列字)에 관한 고찰

행렬자의 전개 과정과 유형을 중심으로

권익기

제1저자,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미래예측학과 석·박사통합과정, 성명학 전공
kwonikki@naver.com

김만태

교신저자,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미래예측학과 교수, 명리학 전공
ware4u@hanmail.net

- I. 머리말
- II. 행렬자의 기원과 전개 과정
- III. 행렬자의 유형과 배정 원칙
- IV. 행렬자의 특징과 향후 전망
- V. 맺음말

I. 머리말

성명(姓名)은 개인을 타인과 구별하는 표지이자 지칭하는 부호이다.¹⁾ 대체로 우리 성명은 가문을 의미하는 한 글자의 성(姓)과 개인을 가리키는 두 글자의 이름(名)으로 구성되어 있다. 성은 출생 전에 주어지고 이름은 출생 후에 선정하는데 전통적으로 이름자 중에서도 항렬자(行列字)가 한 글자를 차지한다.

항렬자란 친족집단 간의 상하 세대(世代) 관계를 분명하게 나타내기 위하여 각 가문에서 일정한 규칙에 따라 이름자 중 한 글자를 미리 배정하여 공통 사용하는 것으로 '들림자'라고도 한다. 이름은 항렬자를 따르는 경우와 따르지 않는 경우로 구분되는데, 통상적으로 양민(良民) 이상의 남성은 항렬자를 사용하고 노비나 여성은 항렬자를 사용하지 않았다.²⁾

항렬자를 사용한 작명은 오행과 천간·지지 기준이나 숫자의 순서, 덕목 문구, 절충하기 등으로 항렬자의 유형에 의해서 나눌 수 있다. 항렬자를 사용하지 않는 작명은 출생 상황 반영과 부모의 소망·감정 반영, 외모·재능상의 특징 반영, 순우리말 짓기, 종교 인명 차용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³⁾

신라 후기부터 사용하기 시작하여 점차 범위가 확대된 우리의 전통문화인 항렬자는 조선 후기 각 가문에서 대동(大同) 항렬자를 미리 정한 후 족보에 밝혀놓음으로써 일반화되었다. 하지만 1960년대 들어 산업화·도시화가 본격화되고 공동체인 가문보다 개인을 우선시하면서 항렬자를 사용하지 않는 이름이 늘어나고 있어서 최근 한 선행연구에서는 항렬자가 장차 사라질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⁴⁾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항렬자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현저히 줄어들었고 성명학을 비롯한 관련 학계에서도 성과 본관·작명 등의 다른 분야와는 달리 항렬자에 대한 선행연구가 거의 없는 편이다.

이에 이 글에서는 점차 사라져 과거의 문화가 될 수도 있는 항렬자의 기원과 전개 과정, 유형과 배정 원칙, 특징과 향후 전망 등을 살펴본 후, 이를 토대로 항렬자 사용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1) 김만태, 「현대 한국사회의 이름짓기 방법과 특성에 관한 고찰: 기복신앙적 관점을 중심으로」, 『종교연구』 제65집(2011), 151쪽.

2) 이복규, 「한국인의 이름에 대하여」, 『온지논총』 제16집(2007), 370쪽.

3) 김만태, 『한국 성명학 신해』(좋은땅, 2016), 22-23쪽.

4) 양명희·강희숙·박동근, 「인명에 대한 태도 연구: 고등학생 자녀와 그 부모 세대를 중심으로」, 『사회언어학』 제21권 제3호(2013), 195쪽.

II. 향렬자의 기원과 전개 과정

1. 향렬자의 기원

우리에게 이름은 언제 어디서나 존재하였겠지만 한자(漢字)의 유입과 성(姓)의 보급에 따라 한 글자의 성과 두 글자의 이름으로 구성된 현재와 같은 세 글자 한자 성명은 고려 초기 지배계층을 중심으로 일반화되었다.⁵⁾

삼국시대는 왕족이나 귀족 일부만 현재와 같은 성명의 사용이 한정되었기에 9세기까지 향렬자가 확인되지 않다가 신라 54대 경명왕(917-924)에 이르러서 향렬자로 볼 수 있는 이름이 나타난다.⁶⁾⁷⁾ 『밀양박씨세보(密陽朴氏世譜)』를 보면⁸⁾ 경명왕의 아들 9형제 이름이 언침(彦忱)·언성(彦成)·언신(彦信)·언립(彦立)·언창(彦昌)·언화(彦華)·언지(彦智)·언의(彦儀)·교순(交舜)으로 같은 언(彦)자를 사용한 것이다. 언침의 후손 중 8세까지는 독자이고, 9세는 언부(彦孚)·언상(彦祥)·언인(彦仁)으로 언(彦)자가 있고, 10세를 보면 효신(孝臣)·의신(儀臣)·양신(良臣)·직신(直臣)의 신(臣)자가 확인되므로, 10세기 초반부터 왕족이 향렬자를 처음으로 사용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다. 또한 고려 태조의 사촌 동생인 왕식렴(王式廉, ?-949)의 아들 이름 함윤(含允)·함순(含順)에서도 왕족의 향렬자 사용이 보인다.⁹⁾

고려 초 태조대(918-943) 박수경(朴守卿, ?-964)의 아들 이름인 좌승(佐丞)·승위(承位)·승경(承景)·승례(承禮)에서 귀족의 향렬자 사용도 보이기 시작한다.¹⁰⁾ 6대 성종대(981-997)에 최량(崔亮, ?-995) 아들의 7형제 이름인 원신(元信)·원좌(元佐)·원억(元億)·원위(元偉)·원간(元侃)·원보(元保)·원준(元俊)에서는 보다 확실해진다.¹¹⁾ 8대 현종대(1009-

5) 김만태(2011), 앞의 논문, 156-157쪽.

6) 윤병준, 「성(姓)으로 본 한국: 한국씨족향렬고(韓國氏族行列攷)」, 『세대』 제2권 통권 11호(1964), 205-206쪽.

7) 동생 위옹(魏膺)이 55대 경애왕으로 왕위를 계승했고 『삼국사기』 등 사료에서는 기록도 없기 때문에 경명왕의 아들이 없다는 주장과 9번째 교순은 경애왕의 아들이라는 주장도 있으나, 본고는 향렬자 사용 여부가 주안점이므로 족보 등에 의거 경명왕의 아들이 9형제라는 기록을 바탕으로 향렬자 사용 여부만 검토했다.

8) 『밀양박씨세보』(1923), 수(收)-율(律)쪽.

9) 『高麗史』 卷92, 「列傳」 5 〈王式廉〉.

10) 『高麗史』 卷92, 「列傳」 5 〈朴守卿〉.

표1- 인천이씨(자연) 세보



1031) 최항(崔沆, ?-1024)의 아들 이름인 유부(有孚)·영부(永孚)에서도 사용이 확인되는 등 10세기 중반을 전후하여 고려의 귀족들은 형제간에 향렬자를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다.¹²⁾

고려 중엽 인천이씨(仁川李氏)를 보면 향렬자 사용은 더욱 뚜렷해진다.¹³⁾ 세 딸이 11대 문종(1046-1083)의 왕비(王妃)가 되었던 이자연(李子淵, 1003-1061)의 동생은 자상(子祥)이고, 아들은 혈(眞)자가 포함되는 한자(漢子), 손자는 자(資), 증손은 지(之)자를 향렬자로 사용하였다. 특히 아들의 혈(眞)이 포함되는 한자와 손자의 자(資)자 향렬자는 사촌까지, 증손의 지(之)자 향렬자는 8촌까지 사용하였음도 확인할 수 있다.¹⁴⁾

향렬자의 사용은 알려진 고려 말보다 빠른 신라 말 10세기 초반 왕족부

11) 『高麗史』 卷93, 「列傳」 6 <崔亮>.

12) 『高麗史』 卷93, 「列傳」 6 <崔亮>.

13) 윤명준(1964), 앞의 논문, 205-206쪽.

14) 『高麗史』 卷95, 「列傳」 8 <李子淵>; 『高麗史』 卷127, 「列傳」 40 <李資謙>.

터 사용하기 시작하여 귀족으로 확대되었다. 현재와 같은 세 글자 한자 성명이 정착하는 과정에 형제간을 나타내는 표시로 자연 발생적으로 생성되어, 고려시대까지는 왕족이나 귀족의 상층도 형제나 4촌 등의 아주 가까운 친족 일부만 한정하여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상층 이외의 계층은 한자식 성명조차 정착하지 않은 시대였기 때문에 향렬자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2. 향렬자의 전개 과정

조선의 개국과 더불어 국가 이념이었던 성리학적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다양한 제도가 정비되었다. 그중 선대(先代) 봉사(奉祀) 영속을 목적으로 초기부터 논의되기 시작한 입후(立後)¹⁵⁾는 1485년 『경국대전(經國大典)』 반포로 법적 원칙까지 확립된 후 17세기 중엽 이후에 확산·보편화되었다.¹⁶⁾ 1484년 김효지(金孝之) 가문이 손자 향렬 입후로 문제가 발생하는¹⁷⁾ 등 입후가 사회 제도로 자리 잡으면서 논란이 있다 보면 향렬과 향렬자가 거론되었을 것이므로 조선 초기부터 향렬자는 국가적 주요 관심사로 등장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다.

문화류씨(文化柳氏)는 10세까지 향렬자를 사용하지 않다가 13세기 후반 11세부터 형제간에 향렬자를 사용하기 시작한다. 15세기 초반 15세부터는 4촌, 16세기 후반 21세부터는 6촌, 17세기 초반 22세부터는 8촌으로 사용 범위가 확대된 후 1864년 대동(大同) 향렬자를 제정하여 친족집단 최대 범위인 동성동본(同姓同本) 가문까지 향렬자를 사용하였다. 문화류씨가 향렬자를 17세기에 8촌까지 확대하였다고 하나 최대 범위가 8촌일 뿐이고 여전히 4촌, 6촌 범위에서 향렬자를 사용하였으며, 대동 향렬자도 동성동본 가문 내에서 일부만 사용하였다.¹⁸⁾

강릉김씨도 향렬자를 16세기 중반 26세까지는 형제간만 주로 사용하다

15) 입후(立後)란 적장자(嫡長子)에 의한 가계(家系) 계승이 불가능한 경우, 후사(後嗣)를 이을 아들이 없는 자가 가문의 조카 등을 양자(養子)로 삼아 본인 및 선대의 제사를 의탁하는 제도이다.

16) 고민정, 「조선후기 입후 방식과 계후자의 향렬에 관한 연구」, 『태동고전연구』 제34집(2015), 158쪽.

17) 『成宗實錄』 卷166, 成宗 15年(1484) 5月 26日(王子).

18) 최재석, 「조선시대의 족보와 동족조직」, 『역사학보』 제81집(1979), 71-73쪽.

가 27세부터 4촌으로 확대되었으며, 29세는 6촌, 18세기 초반 30세는 최소 가문인 8촌까지 확대 정착되었다. 이후에도 31세는 10촌, 32세는 12촌 등으로 한 세대에 한 단계씩 지속적으로 확대되다가 1873년 대동 향렬자를 제정하여 가문의 최대집단인 동성동본으로 확대되었다.¹⁹⁾

1769년에 간행된 족보에 의하면 달성서씨(達城徐氏)도 15세기 중반까지 형제간만 사용하다가 16세기 후반에는 6촌, 17세기 초반 13세와 14세는 8촌 이상까지 향렬자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 시기의 13세와 14세도 20% 내외만 8촌 이상에서 향렬자를 사용하였을 뿐, 8촌 이상 친족집단에서 40% 이상 향렬자를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는 17세기 중반 15세 이후이다. 심지어 18세기에도 6촌 이내에서 향렬자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았다.²⁰⁾

다른 가문에서도 향렬자는 비슷한 시기에 확대된다. 18세기 후반부터 늘어난 족보 편찬과 더불어 용인이씨(龍仁李氏) 1773년, 남양홍씨(南陽洪氏) 1834년, 평양조씨(平壤趙氏) 1850년, 능성구씨(綾城具氏) 1853년, 남원윤씨(南原尹氏) 1860년, 연안김씨(延安金氏) 1870년, 나주정씨(羅州鄭氏) 1873년, 안동권씨(安東權氏)가 1907년에 대동 향렬자를 제정하였다.²¹⁾

조선 후기인 18-19세기 안동지역 향직을 독점했던 안동권씨와 안동김씨 중심으로 대동 향렬자를 사용하기 전까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상층 신분인 양반 가문은 촌수가 멀어져도 특정 향렬자 사용 비중이 높아져 결집 양상을 보인다. 하지만 향리 가계에서는 세대를 거듭할수록 향렬자의 종류도 많아지고 사용 범위가 넓어졌으나, 범위 내에서 사용은 50% 이하로 내려가서 좁은 범위에서 향렬자 사용으로 결속력을 보이면서도 구성원의 이탈과 분화는 지속해서 발견된다.²²⁾

조선 후기로 내려올수록 향렬자의 사용 범위가 넓어지고 종류도 많아졌으나 상층인 양반 이외에는 향렬자 사용이 늘어나지 않았다. 그런데도 양반은 가문이 자라이었으므로 향렬자로 가문의 관리와 통제가 필요하여, 향렬자와 배정 원칙을 미리 정한 후에 18-19세기 편찬이

19) 차장섭, 「조선시대의 족보의 편찬과 의의: 강릉김씨 족보를 중심으로」, 『조선시대사학보』 제2집(1997), 58-60쪽.

20) 권기중, 「조선 후기 족보의 인적 구성과 특징: 〈달성서씨족보(1769)〉를 중심으로」, 『사림』 제43호(2012), 224-228쪽.

21) 최재석(1979), 앞의 논문, 74쪽.

22) 정성학, 「조선 후기 안동 상층 향리의 향직계승(鄉職繼承)과 존재양상」,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14), 30-39쪽.

늘어난 족보에 명문화하여 동성동본의 친족 최대집단까지 확대한 것으로 추정된다.

항렬자의 사용 범위 확대 당시, 상속과 제사에서 장자가 우선되고 족보에서 외손(外孫)이 배제되면서 여성에 앞서 남성을 기록하는 기재 순위 변화 등의 부계 혈연집단인 동성동본 가문의 강화 및 확대라는 변화가 있었다. 항렬자의 사용 범위 확대는 시대적 변화와 요구에 상응하면서 항렬자가 상층 양반 가문의 이름으로 먼저 정착한 것이다.²³⁾

17-19세기 대구 호적의 인명을 보면 상층과 중층은 17세기에 이미 6촌 이내 항렬자 사용은 보편적이었다. 반면에 하층은 17세기에 당대 형제 일부에서만 모일 뿐 4촌 이상에서 나타나지 않다가 19세기 후반에 이르러서야 상층 지향으로 두 글자 한자 이름이 표준화되면서 일부에서 항렬자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이 당시의 천층은 성(姓)조차 없어서 부계 확인도 곤란하였으므로 항렬자 사용을 논할 입장이 아니었다.²⁴⁾ 가문이 자랑인 상층이 먼저 항렬자를 사용한 후에 중층으로 확대되고, 중층 사용 다음으로 하층·천층으로 확대된 것이다.

이성(異姓) 양자를 통하여 계승되는 내시들의 족보인 『양세계보(養世系譜)』에 의하면, 성(姓)이 다른 내시들도 형제나 계과 내에서 항렬자를 사용한 것에서 조선 후기 항렬자의 위상과 비중을 짐작할 수 있다.²⁵⁾ 19세기 말 강화도에 전파된 기독교에서는 세례를 통해서 새롭게 한 형제로 다시 태어났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일(-)자 항렬로 개명하였다. 교동지역 신자 또한 신(信)자 항렬로 개명하였고 하와이 이민자의 일(-)·신(信)자 이름 개명에서도 그 당시 항렬자 사용의 일반화와 작명 관습이 얼마나 강하였는지 실증된다.²⁶⁾

가족관계인 형제간만 항렬자를 사용한 고려시대는 가문의 개념이 없었다고 볼 수 있다. 항렬자의 사용 범위가 4촌과 6촌을 거쳐 17세기 초반을 전후하여 가문의 최소집단인 8촌까지 확대된 사실에서 17세기 초반을 전후하여 항렬자는 가문의 이름이 된 것을 알 수 있다. 조직성과

23) 최재석(1979), 앞의 논문, 73-74쪽.

24) 차재은, 「17-19세기 대구 호적 인명에 대한 사회언어학적 고찰: 남성 인명에 계층성을 중심으로」, 『우리어문연구』 제56집(2016), 423-445쪽.

25) 장희홍, 「〈양세계보(養世系譜)〉를 통해 본 조선시대 내시가의 가계 계승」, 『역사민속학』 제22호(2006), 254-255쪽.

26) 이은용, 「강화학과(江華學派)와 초기 기독교 연구」, 『양명학』 제20호(2008), 335-343쪽.

통제성이 없었다면 가문을 표시하는 항렬자를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어떤 범위 내에서 항렬자가 사용된다는 것은 바로 그 범위가 가문의 기능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조직성과 통제성을 가진 가문이 먼저 형성되면 그 가문의 조직성과 통제성으로 그 범위 내에서 같은 항렬자를 사용하게 된 것이다.²⁷⁾ 대동 항렬자 제정 이전에 가문이 형성된 후 조직성과 통제성으로 항렬자를 사용한 것과는 달리, 제정 이후에는 항렬자를 미리 공지하여 사용하게 함으로써 항렬자가 오히려 친족집단을 조직화하고 통제하도록 도움을 주었다.

조선 초기 국가적 관심사가 된 항렬자는 4촌, 6촌을 거쳐 17세기 초반을 전후하여 친족 최소집단인 8촌까지 확대되었고, 18세기 후반부터 제정된 대동 항렬자로 친족 최대집단인 동성동본까지 사용 범위가 확대되면서 상층·중층·하층의 순서로 일반화되었다. 사용 범위 확대와 더불어 사용자도 증가하였으며 19세기 항렬자 사용의 일반화는 이성 양자로 계승되는 내시와 기독교 신자의 개명에서도 확인된다. 대동 항렬자 제정 이전에는 친족집단이 형성된 후 그 조직성과 통제성으로 항렬자를 사용하였지만, 대동 항렬자 제정 이후에는 먼저 제정된 항렬자가 친족집단을 조직화하고 통제하였다.

III. 항렬자의 유형과 배정 원칙

항렬자는 자연 발생적으로 생성되어 가문에 따라 달리 사용되다가 중국의 영향으로 일정한 기준에 의한 유형과 배정 원칙을 갖추게 된다. 항렬자 유형은 순환 반복하는 대수에 따라 2단위, 5단위, 10단위, 12단위 등으로 구분하기도 하지만 항렬자 유형에 따라서 오행과 천간, 지지, 숫자, 덕목 문구 등으로 나누는 방법이 보편적이다. 이 글에서는 2015년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²⁸⁾에 의한 인구수 200대 본관 가문²⁹⁾의 항렬자를 먼저 조사³⁰⁾한 후, 항렬자의 유형 정립과 오행상생법(五行相生法),

27) 최재석(1979), 앞의 논문, 71-73쪽.

28) 통계청, 『2015 인구주택총조사』(통계청, 2016).

29) 국가통계 포털(kosis.kr) 「총조사인구-성씨·본관」, 2017년 7월 5일 검색 참조.

30) 인구수 200대 동성동본 본관 가문의 항렬자는 대중회 인터넷 홈페이지와 카페 확인,

음양순환법(陰陽巡選法), 그리고 기타의 세 유형 분류³¹⁾와 그 의미, 그리고 항렬자의 전후 위치 배정 원칙까지 살펴보았다.

1. 항렬자의 유형 정착

성리학의 체계를 이룬 송나라 주희(朱熹, 1130-1200) 가계를 사위인 황간(黃幹)이 편찬한 『행장(行狀)』을 통해서 살펴보면, 아버지 송(松)은 목(木), 본인 희(熹)는 화(火), 아들 숙(塾)·야(埜)·재(在)는 토(土), 손자 거(鉅)·균(鈞)·감(鑑)·탁(鐸)·질(錡)·현(鉉)·주(鑄)는 금(金), 증손자 연(淵)·흡(洽)·잠(潛)·제(濟)·준(浚)·징(澄)은 수(水)자가 이름에 포함된다.³²⁾

명나라 황실 계보를 살펴보면 태조 주원장(朱元璋, 1328-1398)의 아들인 3대 체(棧)는 목(木), 손자인 2대 윤문(允文)과 4대 고치(高熾)는 화(火), 증손인 5대 첨기(瞻基)는 토(土), 현손인 6대 기진(祁鑑)과 7대 기옥(祁鉅)은 금(金), 6세손인 8대 견심(見深)은 수(水)자가 이름에 나타난다. 주희와 주원장의 가계만 봐도 중국은 이미 12세기에 오행상생법 유형에 의한 항렬자를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문과에 급제한 후손이 80명이 넘을 정도로 가문을 크게 부흥시킨 조선 중기의 여흥민씨(驪興閔氏) 17세 민사용(閔思容, 1515-1579)의 세보를 살펴보면, 아들은 수(水)의 여(汝), 손자는 목(木)의 기(機), 증손은 화(火)의 훈(勳), 현손은 토(土)의 중(重), 6세는 금(金)의 진(鎭)자가 확인되므로 우리도 16세기부터 오행상생법 유형에 의한 항렬자 사용을 엿볼 수 있다.³³⁾

조선 중기 예학(禮學) 연구가로 송시열(1607-1689) 등 많은 제자를 길러낸 광산김씨(光山金氏) 27세 김장생(金長生, 1548-1631)의 세보에서

대중회 전화 및 방문 위주로 조사하고, 200대 가문의 족보를 비롯한 중앙일보사의 『성씨의 고향』, 윤병준의 『한국씨족항렬고』, 『신라김씨 이천년』 등을 보충적으로 참고했다.

31) 하나의 동성동본 본관 가문에서 여러 유형의 대동 항렬자를 사용하거나, 대동 항렬자 없이 파(派)나 지파(支派)의 항렬자 유형이 다를 경우에는 여러 유형 중 가장 많은 유형으로 분류했다.

32) 조남호, 『주희, 중국철학의 중심』(태학사, 2004), 29쪽; 양종국, 「중국인 학자가 본 〈신안주씨세보(新安朱氏世譜)〉」, 『역사와 역사교육』 제5호(2000), 195-204쪽.

33) 『여흥민씨계보』 1권(1973), 426-453쪽.

표2-여흥민씨(사용) 세보



도 아들은 목(木)이 포함되는 한자, 손자는 화(火)의 익(益), 증손은 토(土)의 만(萬), 현손은 금(金)의 진(鎭), 6세는 수(水)가 포함되는 한자가 이름에서 사용³⁴⁾되었으므로 오행상생법 항렬자 유형이 확인된다.

16세기 오행상생법 항렬자의 유형이 정착되기 이전에도 우리에게서 오행상생법과 전혀 다른 항렬자 유형이 이미 형성된 가문도 있었다. 영일정씨(迎日鄭氏) 감무공파(監務公派)는 고려 32대 우왕대(1374-1388)의 7세 정홍(鄭洪, ?-1420)부터 시작하여 수(水)가 포함되는 한자를 항렬자로 계속 사용했다.³⁵⁾ 조선 7대 세조대(1455-1468)의 8세 이계전(李季甸)(1404-1459)은 화(禾), 아들은 토(土), 손자는 수(水)가 포함되는 한자를 사용한 후, 이때부터 한산이씨(韓山李氏)는 화(禾)·토(土)·수(水)가 포함되는 한자를 항렬자로 순환하면서 반복했다.³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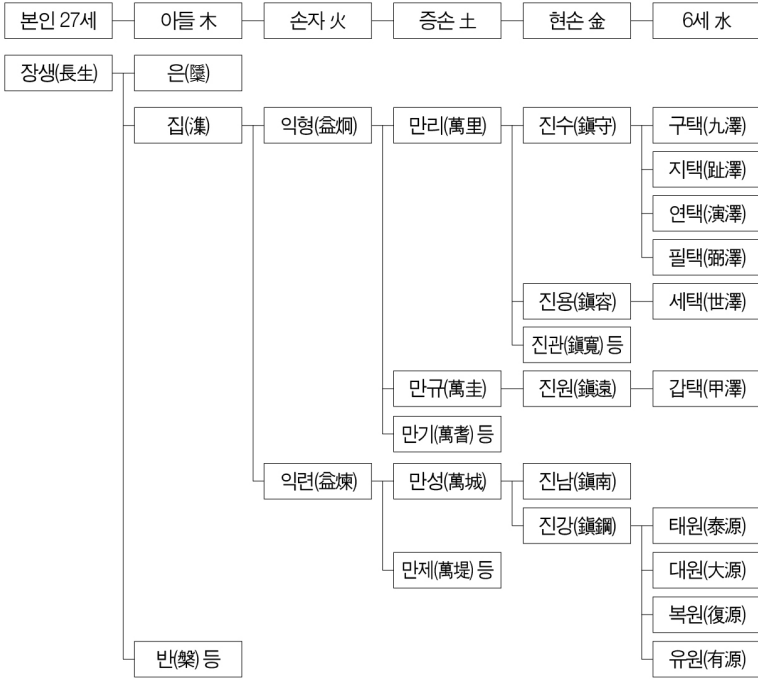
동성동본 본관 가문의 대동 항렬자 정착 이후에도 소종중(小宗中) 항렬자가 별도로 존재하고 사용 중이며, 두 유형을 함께 사용하기도 하고 다른 유형으로 변경하는 가문도 있었다. 평산신씨(平山申氏)는 파벌 항렬자를 쓰다가 32세부터 오행(五行), 42세부터 천간(天干), 52세부터 61세까지는 오행 항렬자로 변경했다. 강릉김씨(江陵金氏)도 33세부터는 지지(地支), 45세부터는 천간(天干), 55세부터 64세까지는 오행으로 유형을 변경하여 항렬자로 사용하고 있다.

34) 『광산김씨족보』 2권(1957), 123-124쪽; 『광산김씨족보』 9권(하)(1957), 1-23쪽.

35) 『영일정씨세보』 1권(1872), 3쪽.

36) 『한산이씨세보』 1권(1958), 1-8쪽.

표3- 광산김씨(장생) 세보



고령신씨(高靈申氏)는 수(水)·목(木) 순환 유형에서 28세부터 오행으로, 삭녕최씨(朔寧崔氏)는 오행에서 30세부터 숫자로, 영양천씨(潁陽千氏)는 천간에서 23세부터 오행으로 바뀌었다. 거창신씨(居昌愼氏)는 천간에서 36세부터 오행으로, 함안이씨(咸安李氏)도 오행에서 27세부터 천간으로 항렬자 유형을 변경했다. 또한 여산송씨(礪山宋氏) 밀직공파(密直公派)는 덕목 문구와 오행상생법을, 여산송씨 정가공파(正嘉公派)는 천간지지법과 오행상생법을 사용하는 등 전혀 다른 두 유형의 항렬자를 사용하는 가문도 있다. 이는 확정된 가문의 대동 항렬자 유형에 우리가 고착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항렬자 생성과 같이 항렬자 유형도 세 글자의 한자 성명이 정착하는 과정에 자연 발생적으로 생성되어 체계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16세기 말부터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 오행상생법 유형으로 정착하였다. 대동 항렬자 정착 이후에 다른 유형으로 변경하는 가문도 있을 뿐만 아니라 소종중 항렬자나 두 유형 항렬자도 함께 존재하기에 하나의 유형에 항렬자가 고착화되지는 않았다.

2. 항렬자의 유형 분류

1) 오행상생법(五行相生法)

오행상생법은 목(木)·화(火)·토(土)·금(金)·수(水) 오행 글자가 상생설(相生說)에 따라서 목생화(木生火), 화생토(火生土), 토생금(土生金), 금생수(金生水), 수생목(水生木)으로 순환하는 유형이다. 오행의 글자는 목·화·토·금·수 기본 글자와 자의(字意)나 부수(部首), 소리(音), 오방(五方), 오시(五時), 오상(五常), 오미(五味), 오색(五色), 오장(五臟), 오수(五數), 오정(五情), 오성(五聲), 천간(天干), 지지(地支), 팔괘(八卦), 원형이정(元亨利貞), 사신(四神) 등에서 오행 의미를 갖는 한자, 그리고 오행 의미를 갖는 글자를 포함하는 한자까지 항렬자 유형에서 사용된다.³⁷⁾ 또한 오행상생법은 목·화·토·금·수 오행 5단위가 항렬자로 순환 반복되므로 5단위 순환법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우리의 성씨별 항렬자 유형은 80% 이상이 오행상생법이라는 선행연구³⁸⁾가 있는 등 오행상생법이 일반적이라고 알려져 있다. 2015년 우리 국내 인구의 87.5%³⁹⁾를 점유하는 본관 200대 가문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경주이씨(慶州李氏) 등 오행상생법이 183가문으로 91.5%를 차지하여 우리의 항렬자가 대부분 오행상생법 유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

표4-인구수 200대 본관 가문 항렬자 유형

유형		가문 수	본관명
오행상생법		183	김해김씨 밀양박씨 전주이씨 경주김씨 경주이씨 진주강씨 경주최씨 광산김씨 파평윤씨 청주한씨 등
음양 순환법	천간법	8	천안전씨 풍양조씨 청풍김씨 여양진씨 여주이씨 연양김씨 보성선씨 함안이씨
	천간지지법	5	한양조씨 양천허씨 김해허씨 나주김씨 단양장씨
	숫자법	3	안동권씨 반남박씨 삭녕최씨
기타		1	화·토·수(火·土·水) 유형: 한산이씨
합계		200	

37) 송하순, 「성씨별 항렬자 연구」, 공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07), 26-39쪽.

38) 송하순(2007), 위의 논문, 31쪽.

39) 2015년 11월 1일 0시 통계청 「2015 인구주택총조사」의 200대 가문 인구비율이다.

(200대 가문 인구수÷국내 인구수)×100=43,472,200÷49,705,663×100=87.5(%)

동성동본 가문 내에서도 소종중이나 8촌 이내 친족집단, 심지어 특정 형제간만 대동 항렬자와 다른 항렬자를 사용하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우리 인구의 35.7%⁴⁰⁾인 김해김씨(金海金氏) 등 인구수 10대 가문 전부가 오행상생법 유형이어서 항렬자의 오행상생법 풀림 현상은 심하다.

- 경주이씨: 영(榮)-규(圭)-중(鍾)-우(雨)-상(相)-희(熙) · 형(炯)-재(在)-호(鎬) · 건(鍵)-제(濟) · 준(濬)-동(東)-병(丙) · 심(心)-교(教) · 세(世)-진(鎭)-구(求)-근(根)-섭(燮)-준(墩)-선(善)-태(泰)-모(模)-현(炫)-균(均)-용(鎔)-순(淳)-병(秉)-걸(杰)
- 광산김씨: 진(鎭)-택(澤)-상(相)-기(箕)-재(在)-현(鉉)-영(永)-수(洙)-용(容)-중(中)-선(善)-순(淳)-동(東)-환(煥)-규(奎)-용(鏞)-연(淵)-식(植)-형(炯)-곤(坤)
- 남평문씨: 식(植) · 모(模) · 상(相)-희(熙) · 형(炯) · 병(炳)-주(周) · 기(基) · 균(均)-중(鐘) · 용(鎔) · 련(鍊)-영(泳) · 수(洙) · 흡(洽)-동(東) · 학(學) · 환(桓)-노(魯) · 섭(燮) · 훈(勳)-재(在) · 시(時) · 규(圭)-선(銑) · 일(鎰) · 석(錫)-택(澤) · 태(泰) · 해(海)
- 함안조씨: 식(植)-성(性)-규(奎)-용(鏞)-제(濟) · 하(河)-래(來) · 상(相)-현(顯) · 묵(默)-재(在) · 주(周)-흙(欽) · 호(鎬)-수(洙)-동(東)-환(煥)-배(培)-중(鐘)-한(漢)-근(根)
- 청송심씨: 지(之)-능(能)-의(宜)-택(澤)-상(相)-섭(燮)-재(載)-보(輔)-규(揆)-용(用)-영(寧)-기(起)-장(章)-후(厚)-양(亮)-남(南)-무(茂)-용(鎔)-한(漢)-근(根)-형(炯)-균(均)-진(鎭)-순(淳)-동(東)-병(炳)-곤(坤)
- 연안차씨: 훈(壘)-용(鏞)-준(濬)-주(柱)-환(煥)-재(載)-호(鎬)-순(淳)-근(根)-희(熙)-기(基)-선(善)-철(澈)-영(榮)-헌(憲)-동(桐)-중(鐘)-형(滢)-식(植)-광(光)-재(在)-명(銘)-홍(洪)-동(東)-열(烈)-배(培)-현(鉉)
- 광주이씨: 회(會)-병(秉)-래(來)-용(容)-재(載)-중(鍾)-수(洙)-주(柱)-희(熙)-규(圭)-현(鉉)-해(海)-식(植)-남(南)-옥(玉)-선(善)-택(澤)-영(榮)-섭(燮)-재(在)
- 전의 · 예안이씨: 원(源) · 현(鉉)-수(秀) · 해(海)-용(容)-균(均)-석(錫)-영(永)-동(東)-환(煥)-중(重)-현(鉉)-태(泰)-주(柱)-충(忠)-효(孝)-

40) 위 조사의 10대 가문 인구비율이다.

(10대 가문 인구수÷국내 인구수)×100=17,748,056÷49,705,663)×100=35.7(%)

용(鎔)-순(淳)-영(榮)

오행상생법에서 상생(相生)의 사전적 의미는 서로 상(相)과 낳 생(生)이 합쳐져서 서로가 서로를 낳고 살리고 돕고 보호한다는 뜻이다. 그렇지만 오행에서 기본적 상생은 서로보다 수(水)는 목(木)을 생(水生木)하고, 목(木)은 화(火)를 생(木生火)하며, 화(火)는 토(土)를 생(火生土)하고, 토(土)는 금(金)을 생(土生金)하며, 금(金)은 수(水)를 생(金生水)하는 의미가 더욱 강하다. 씨앗에서 싹이 움터 자라나고(水生木) 꽃이 피며(木生火) 음양의 조화를 이루어(火生土) 그 결과로 열매를 맺고(土生金) 다음을 기다리며 씨앗을 간직하는(金生水) 생명의 순환과정을 오행상생법은 담고 있다.⁴¹⁾

오행상생법은 상생의 사전적 의미처럼 서로를 돕고 보호한다는 기문과 세대 간의 화합도 분명히 담겨 있다. 하지만 오행의 기본적 상생 의미와 같이 내리사랑을 바탕으로 생명 순환 과정을 통한 후손의 부귀영화와 가문의 번성을 바라는 의미가 더욱 강하다고 할 수 있다.

2) 음양순환법(陰陽循環法)

음양순환법은 선행연구에서 천간(天干)과, 지지(地支), 천간지지(天干地支), 숫자 순서에 의한 순환법으로 세분하였다. 그러나 사용하는 기문이 많지 않고 세분된 유형이 모두 음양을 순환하면서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음양순환법 하나의 유형으로 분류했다.

음양순환법은 갑(甲)에서 계(癸)까지 십천간이 포함되는 한자를 천간 순서에 의하여 순환시키는 천간법(天干法)과, 자(子)부터 해(亥)까지 십이 지지가 포함되는 한자를 지지 순서대로 순환시키는 지지법(地支法)이 있다. 또한 천간·지지가 포함되는 한자를 천간 순서대로 순환한 후 지지 순서대로 다시 순환시키면서 반복하는 천간지지법(天干地支法)과 일(-)에서 십(+까지 숫자가 포함되는 한자를 선택하여 숫자 순서에 의하여 순환하는 숫자법 등이 있다.

음양순환법을 순환 반복되는 대수에 따라서 구분하면 천간 10단위가 반복 순환하는 천간법은 10단위 순환법이다. 지지 12단위가 반복 순환하

41) 김만태, 『명리학강론』(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2017), 27-28쪽.

는 지지법은 12단위 순환법이고 천간 10단위와 지지 12단위가 반복 순환하는 천간지지법은 22단위 순환법이라고 할 수 있다.

표4의 인구수 200대 가문 항렬자 유형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천간법은 천안전씨(天安全氏), 풍양조씨(豐壤趙氏), 청풍김씨(淸風金氏), 여양진씨(驪陽陳氏), 여주이씨(驪州李氏), 언양김씨(彦陽金氏), 보성선씨(寶城宣氏), 함안이씨(咸安李氏) 등 8가문 4.0%이다. 천간지지법은 한양조씨(漢陽趙氏), 양천허씨(楊川許氏), 김해허씨(金海許氏), 나주김씨(羅州金氏), 단양장씨(丹陽張氏) 등 5가문 2.5%이며, 숫자법은 안동권씨(安東權氏), 반남박씨(潘南朴氏), 삭녕최씨(朔寧崔氏) 등 3가문 1.5%에 불과하였다. 음양순환법 전체의 경우에도 16가문 8.0%로 점유율이 낮고, 교동인씨(喬桐印氏) 유형인 지지법은 조사한 200대 가문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 천간법

- 천안전씨: 상(尙)-래(來)-무(茂)-범(範)-상(庠)-재(宰)-정(廷)-옥(沃)-주(冑)-옥(旭)-남(南)-우(雨)-성(晟)-기(起)-강(康)-장(章)-성(聖)-규(揆)-인(寅)-구(九)
- 풍양조씨 전직공계: 동(東)-구(九)-남(南)-연(衍)-성(誠)-희(熙)-용(鏞)-신(新)-중(重)-규(揆)-용(用)-원(元)-상(商)-형(衡)-무(茂)-범(範)-강(康)-재(宰)-종(鐘)
- 청풍김씨 청로상장군공파 · 영동정도총제공파: 주(周)-구(九)-병(昞)-령(寧)-성(成)-기(紀)-용(庸)-재(宰)-중(重)-규(揆)-보(輔)-량(亮)-회(會)-현(顯)-국(國)
- 여양진씨: 범(範) · 희(熙)-용(庸) · 강(康)-장(章) · 언(彦)-수(壽) · 희(喜)-환(喚) · 호(昊)-우(遇) · 익(翼)-원(元) · 구(九)-상(商) · 남(南)-녕(寧) · 은(恩)-재(載) · 무(武)-면(勉) · 기(紀)-도(度) · 경(慶)-달(達) · 재(宰)-성(聖) · 정(廷)-규(揆) · 발(發)
- 여주이씨: 만(萬) · 갑(甲)-원(元) · 봉(鳳)-병(柄) · 우(雨)-영(寧) · 연(衍)-무(茂) · 성(成)-용(龍) · 기(起)-용(庸) · 강(康)-장(章) · 재(宰)-성(聖) · 정(廷)-규(揆) · 발(發)
- 언양김씨: 갑(甲)-구(九)-병(昞)-령(寧)-성(成)-희(熙)-강(康)-재(宰)-정(廷)-규(揆)-우(遇)-원(元)-회(會)-은(殷)-의(義)-기(起)-용(庸)-신(新)-규(奎)-하(夏)

- 보성선씨: 갑(甲) · 동(東) · 만(萬) · 용(用)-을(乙) · 면(勉) · 옥(旭) · 구(九)-병(丙) · 회(會) · 남(南) · 증(增)-정(丁) · 령(寧) · 하(夏) · 연(衍)-무(戊) · 성(成) · 무(茂) · 무(武) · 의(儀)-기(己) · 기(起) · 기(紀) · 범(範)-경(庚) · 강(康) · 광(廣) · 도(度) · 경(慶)-신(辛) · 재(宰) · 택(澤) · 옥(昱)-임(壬) · 성(性) · 윤(潤) · 중(重)-계(癸) · 천(天) · 규(揆) · 찬(燦)

- 함안이씨: 갑(甲) · 용(用)-원(元) · 구(九) · 옥(旭)-병(炳) · 필(弼) · 영(永)-행(行) · 령(寧) · 화(和)-무(茂) · 함(咸) · 연(然) · 성(成)-희(熙) · 기(基) · 재(在) · 범(範)-경(庚) · 옥(鈺) · 강(康)-재(梓) · 재(宰) · 원(源)-정(理) · 성(聖) · 동(東)-규(揆) · 환(煥) · 헌(憲) · 발(發)

● 지지법

- 교동인씨: 교(教) · 돈(敦)-병(秉) · 용(庸)-연(演) · 주(胄)-경(卿) · 영(迎)-진(震) · 신(晨)-범(範) · 희(熙)-준(準) · 오(昨)-동(東) · 래(來)-중(重) · 연(連)-유(猷) · 순(醇)

● 천간지지법

- 한양조씨: 원(元) · 윤(允)-병(炳) · 병(昞)-행(行) · 형(衡)-성(誠) · 성(成)-희(熙) · 기(紀)-경(慶) · 용(庸)-신(新) · 장(章)-정(廷) · 성(聖)-규(葵) · 규(揆)-학(學) · 존(存) · 후(厚)-서(書) · 숙(肅) · 용(用)-연(演) · 인(寅) · 황(璜)-경(卿) · 소(邵) · 영(迎)-진(震) · 진(振) · 양(養)-범(範) · 용(龍) · 기(夔)-년(年) · 남(南) · 준(準)-동(東) · 수(洙) · 래(來)

- 양천허씨: 만(萬)-옥(旭)-회(會)-행(行)-무(茂)-범(範)-강(康)-재(宰)-정(廷)-규(揆)-학(學)-병(秉)-연(演)-경(卿)-진(振)-용(龍)-남(南)-수(洙)-창(暢)-상(商)

- 김해허씨: 우(遇) · 만(萬)-구(九) · 량(亮)-필(弼) · 남(南)-행(行) · 령(寧)-성(成) · 성(盛)-기(紀) · 범(範)-용(庸) · 강(康)-신(新) · 재(宰)-정(廷) · 병(秉)-발(發) · 규(揆)-돈(敦) · 학(學)-건(建) · 숙(肅)-인(寅) · 연(演)-경(卿) · 혼(欣)-진(震) · 근(根)-용(龍) · 완(琬)-보(寶) · 성(性)-업(業) · 수(洙)-동(東) · 중(重)-유(猷) · 준(遵)

- 나주김씨: 구(九) · 탁(鐸) · 원(元)-우(禹) · 병(昞) · 운(雲)-형(衡) · 우(宇) · 연(衍)-성(成) · 재(載) · 무(茂)-기(起) · 희(熙) · 현(弦)-유(分) · 병(秉) · 강(康)-창(彰) · 재(宰) · 엽(燁)-진(珍) · 치(致) · 임(任)-규(揆) · 호(昊) · 발(發)-효(孝) · 교(教) · 학(學)-근(根) · 은(殷) · 겸(兼)-인(寅) · 주(宙) · 연(演)-옥(郁) · 경(卿) · 순(郇)-진(振) · 양(良) · 농(濃)
- 단양장씨: 용(用) · 포(甫)-봉(鳳) · 구(九)-남(南) · 병(炳)-녕(寧) · 행(行)-성(成) · 성(盛)-기(起) · 희(熙)-상(庠) · 경(慶)-재(宰) · 화(華)-중(重) · 정(廷)-규(揆) · 호(昊)-학(學)-동(東)-인(寅)-경(卿)-진(振)-범(範)-조(祚)-수(洙)-익(翼)

● 숫자법

- 안동권씨: 병(丙)-중(重)-태(泰)-영(寧)-오(五)-혁(赫)-순(純)-용(容)-구(九)-승(升)-일(一)-원(元)-전(全)-택(澤)-서(書)-명(溟)-칠(七)-준(駿)-옥(旭)-갑(甲)
- 반남박씨: 천(天) · 인(仁) · 지(持)-춘(春) · 승(承)-헌(憲) · 령(寧)-오(吾) · 오(五)-장(章) · 재(宰)-호(虎) · 순(純)-겸(謙) · 선(善)-옥(旭) · 구(九)-평(平) · 두(斗)
- 삭녕최씨: 현(鉉)-수(洙)-환(桓)-섭(燮)-재(載)-승(丞)-운(雲)-춘(春)-헌(憲)-오(梧)-경(京)-순(純)-용(容)-원(元)-탁(卓)

음양은 동서양을 막론한 인류의 보편적 세계관으로 낮과 밤, 여름과 겨울, 하늘과 땅, 높고 낮음 등의 대칭적인 개념이지만, 고정된 절대 불변의 세계가 아니라 마주 보는 대상과 함께 어우러져 작용하는 상대의 세계이다. 음 속에 양이 있고 양 속에 음이 있으며 음이 지극하면 양이 되고 양이 지극하면 음이 되는 것이다. 음양의 세계에서는 근본적으로 좋고 나쁨의 구별이 없는 상화(相和)의 세계가 펼쳐진다.⁴²⁾ 중국의 영향을 받아 오행상생법으로 정착한 항렬자외는 달리 음양순환법은 가문의 체통과 명예의 보존에 주력한 결과라는 선행연구가⁴³⁾ 타당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오행상생법과 같이 가문 및 세대 간에 서로 화합하고 발전하고

42) 김만태(2017), 앞의 책, 5-8쪽.

43) 윤병준(1964), 앞의 논문, 214쪽.

자 하는 염원을 담았다고 보는 것이 더욱 적절한 것으로 생각된다.

3) 기타 유형

200대 본관 가문에서는 오행상생법과 음양순환법 이외의 기타 유형은 화(禾)·토(土)·수(水)가 포함되는 한자를 항렬자로 순환 반복 사용하는 한산이씨 한 가문밖에 없었다. 27세 수(秀)자까지 수(水)·목(木)이 포함되는 한자를 교대로 순환하는 항렬자를 사용하다가 28세 희(熙)자부터 오행상생법으로 변경한 고령신씨도 있었다.

또한 대동 항렬자가 아닌 소종중 항렬자에서 수(水)가 포함되는 한자를 계속 사용하는 영일정씨 감무공파도 존재했다. 덕목 문구와 오행상생법을 사용하는 여산송씨 밀직공파와 천간지지법과 오행상생법을 사용하는 여산송씨 정가공파와 같이 두 유형을 병행하는 가문도 있었다.

- 한산이씨: 재(在)-승(承)-직(植)-규(珪)-구(求)-복(馥)-원(遠)-준(濬)·수(洙)·식(湜)-석(柘)·화(禾)·선(稂)-균(均)·응(膺)·배(培)·민(珉)-순(淳)·호(灑)·양(洋)·현(洊)-내(來)·수(穗)·영(穎)-용(瑢)·락(珞)-홍(洪)·문(汶)-곤(困)·소(穌)-계(桂)·보(珣)-광(洸)·왕(汪)-진(秦)·승(乘)-영(瑩)·천(琫)-황(滉)·철(澈)-채(采)·교(矯)
- 고령신씨: 권(權)-록(祿)-모(模)-구(求)-휴(休)-우(雨)-식(植)-호(浩)-수(秀)-희(熙)-규(圭)-종(鐘)-영(永)-상(相)-섭(燮)-재(在)-용(鎔)-태(泰)-근(根)
- 영일정씨 감무공파: 택(澤)-태(泰)-용(溶)-구(求)-영(永)-진(震)-종(淙)-준(準)-회(滄)-승(承)-래(來)-우(雨)
- 여산송씨 밀직공파: 원(元)·호(浩)-형(亨)·영(榮)-이(利)·섭(燮)-정(貞)·재(在)-인(仁)·현(鉉)-의(義)·락(洛)-예(禮)·화(和)-지(智)·환(煥)-효(孝)·희(喜)-제(弟)·석(錫)-충(忠)·수(洙)-신(信)·병(秉)
- 여산송씨 정가공파: 만(萬)·주(柱)-면(勉)·영(榮)-회(會)·요(堯)-현(顯)·석(錫)-의(儀)·태(泰)-범(範)·근(根)-용(庸)·용(容)-재(宰)·규(圭)-성(聖)·현(鉉)-규(揆)·영(永)-학(學)·동(東)-병(秉)·열(烈)-연(演)·철(喆)-경(卿)·호(鎬)-진(振)·해(海)

화(禾)·토(土)·수(水) 3단위가 순환 반복되는 한산이씨는 ‘곡식(禾)은 흙(土)과 물(水)이 있어야 자랄 수 있다’는 의미로 알려져 있으므로⁴⁴⁾ 가문의 화합과 번성을 강조한 의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고령신씨도 7세가 본인의 이름 ‘뚝대 장(樵)’에서 물에 뜬 배를 연상하여 아들 다섯의 이름에 주(舟)자를 쓴 다음 자손이 번성한 후 19세부터 수(水)·목(木)을 교대하면서 순환하는 항렬자를 사용했다는 것을 고령신씨대종회에서 밝혀놓았을 정도이므로⁴⁵⁾ 항렬자는 가문과 후손 번영의 염원을 담고 있다.

영일정씨 감무공파의 경우에는 수(水)가 포함되는 한자를 순환 없이 항렬자로 계속 사용한다. ‘금(金)성인 정(鄭)씨가 목(木)성인 조선 왕조 이(李)씨를 금극목(金剋木)으로 이긴다’는 오행상극법(五行相剋法)⁴⁶⁾이나 ‘이씨가 망하고 정씨가 왕이 된다’는 『정감록』과 달리, 항렬자 수(水)가 목(木)성을 생(生)하므로 ‘정씨가 조선 왕조 이씨를 돕는다’는 오행상생법의 의미로 알려져 있다.⁴⁷⁾ 여산송씨의 밀직공파와 같이 덕목 문구를 사용한 가문에서는 후손에게 좋은 일만 생기도록 바라는 염원을 항렬자가 그대로 담고 있다.

이처럼 한산이씨와 고령신씨, 영일정씨 감무공파, 여산송씨 밀직공파 등의 기타 유형은 항렬자의 유형을 특정하기는 곤란하다. 하지만 살펴본 기타 유형 모두가 가문의 화합과 번성을 담고 있으므로 그 의미는 오행상생법이나 음양순환법과 크게 다르지 않다.

3. 항렬자의 배정 원칙

각 가문에서 미리 정한 항렬자는 이름 두 글자 중에서 위치까지 사전에 배정된다. 아버지 항렬자가 앞에 오면 아들은 뒤에 손자는 다시 앞에 오면서 전후 1대씩 순환한다는 것이 항렬자의 배정 원칙이다. 한 선행연구에서 17-19세기에는 전후 1대 순환이 보편적이지 않다고 밝힌 정착과정

44) 송하순(2007), 앞의 논문, 62쪽.

45) 고령신씨대종회(goshin.or.kr) 『연원탐방-항렬표』, 2017년 7월 30일 검색 참조.

46) 금(金)은 목(木)을 함부로 못하도록 통제, 즉 금(金剋木)하고, 목(木)은 토(土)를 극(木剋土)하며, 토(土)는 수(水)를 극(土剋水)하고, 수(水)는 화(火)를 극(水剋火)하며, 화(火)는 금(金)을 극(火剋金)하는 오행의 순환 상극관계를 말한다.

47) 윤병준, 『한국씨족항렬고(韓國氏族行列攷)』(회상사, 1987), 49-51쪽.

도⁴⁸⁾ 있었으나 현재는 불문율로 인정하는 선행연구⁴⁹⁾가 있을 정도로 일반적으로 인정된다.

본관 200대 가문 중에서 향렬자 배정 원칙이 확인된 124가문을 조사⁵⁰⁾해보면, 전후 1대 순환이 전주이씨(全州李氏) 등 109가문으로 87.9%를 차지하여,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전후 1대 순환이 보편적임이 확인된다. 전후 1대 순환 이외에도 수원백씨(水原白氏), 옥천조씨(玉川趙氏), 풍산홍씨(豊山洪氏) 등의 전후 2대 순환과 안동권씨(安東權氏) 등의 전후 10대 순환도 4가문 3.2%가 있었다. 이름의 뒷자에만 계속 사용하는 가문도 청주한씨(淸州韓氏), 충주지씨(忠州池氏), 연안김씨(延安金氏), 풍천노씨(豊川盧氏) 등이 있고, 전후를 순환하지 않고 불규칙적으로 사용하는 가문도 해주오씨(海州吳氏), 창원황씨(昌原黃氏), 한산이씨(韓山李氏), 기계유씨(杞溪兪氏), 동복오씨(同福吳氏), 경주손씨(慶州孫氏), 강릉함씨(江陵咸氏) 등으로 비순환이 11가문 8.9%를 차지하였다.

표5-인구수 200대 가문 향렬자 배정

유형		본관 수	본관명
전후 순환	1대	109	전주이씨 경주이씨 진주강씨 광산김씨 평산신씨 순흥안씨 등
	2대	3	수원백씨 옥천조씨 풍산홍씨
	10대	1	안동권씨
비순환	후 계속	4	청주한씨 충주지씨 연안김씨 풍천노씨
	불규칙	7	해주오씨 창원황씨 한산이씨 기계유씨 동복오씨 경주손씨 강릉함씨
합계		124	

48) 차재은(2016), 앞의 논문, 426-440쪽.

49) 이복규(2007), 앞의 논문, 374쪽.

50) 조사한 인구수 200대 동성동본 본관 가문 중 인터넷 대종회 홈페이지와 카페, 대종회에서 향렬자가 확인된 가문만 배정 원칙을 조사했다.

IV. 항렬자의 특징과 향후 전망

1. 항렬자의 특징

우리의 성명은 일반적으로 부계(父系) 가문의 혈통을 나타내는 한 글자의 성과 개인을 가리키는 두 글자의 이름으로 구성되어 있다.⁵¹⁾ 이름 두 글자 중에서도 친족집단 간의 상하 세대 관계를 나타내기 위하여 각 가문에서 미리 정하여 사용하는 항렬자가 한 글자이다.

항렬자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항렬자는 상층 신분의 표지(標識)였다. 형제간의 표시로 생성된 항렬자가 왕족부터 상층·중층·하층으로 사용 범위가 확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항렬자를 양민 이상 상층의 남성은 사용하고 여성과 친층은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⁵²⁾ 상층 신분의 표지가 된 것이다. 특히 조선 후기에는 성과 본관, 항렬자만 밝혀도 가문과 세대까지 확인될 정도로 항렬자가 확실한 상층 신분의 표지였다. 하층은 상층을 지향하면서 사용을 확대하였고 상층은 신분 표지의 수단으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항렬자는 이름 두 글자 중 한 글자의 중요한 위치와 역할을 1,000년 넘게 수행한 것이다.

둘째, 항렬자는 가문의 화합과 번성의 의미를 담고 있다. 오행 5단위가 상생 순서로 순환하는 오행상생법이 91.5%, 음양순환법 8.0%, 기타 0.5%로 유형이 구분되고 항렬자도 가문에 따라 다양하다. 하지만 대부분의 항렬자 유형이나 항렬자의 의미가 오행 상생이나 음양의 조화 등으로 사용하는 부계 친족집단인 가문의 화합과 번영을 담고 있고, 역사 또한 1,000년 이상 된 우리의 전통문화 유산이다.

셋째, 항렬자는 가문의 통제 시스템이었지만 이제는 그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 대동 항렬자를 제정하기 이전에는 부계 친족집단인 가문이 먼저 형성된 후 조직성과 통제성으로 항렬자를 사용하였다. 대동 항렬자 제정 이후에는 가문의 지식인들이 먼저 제정한 항렬자가 자긍심과 소속감을 갖도록 친족집단을 조직화하고 통제하도록 도움을 주었다. 그러나 가문 의식이 약해지면서 항렬자 사용이 감소하여 가문의 통제 시스템

51) 김만태(2011), 앞의 논문, 156쪽.

52) 이복규(2007), 앞의 논문, 370쪽.

기능을 이미 상실하였다.

넷째, 향렬자는 좋은 이름 작명에 제약이 된다. 두 글자보다 이미 정해진 향렬자를 뺀 한 글자만으로 부르기가 쉽고 듣기 좋으며 좋은 의미까지 담은 길한 이름을 작명하기는 어렵다. 1962년부터 시작된 가족계획으로 출산율이 떨어지면서 출생아에게 쏟는 사랑이 커져 관심이 높아진 좋은 이름 작명에 제약이 되는 향렬자의 사용은 줄어들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다섯째, 여성은 대동 향렬자가 없다. 족보 편찬이 활성화되고 향렬자가 정착된 16-19세기가 남성 중심 사회였고, 결혼 이후 여성의 이름 사용은 기피 사항이었으며, 향렬자가 부계 친족집단인 가문의 이름이기에 정착된 특징이다. 그러나 여성의 이름이 호적 신고 대상이 되고 사회활동이 늘어나면서 여성의 향렬자가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남녀가 평등한 현재까지 여성 대동 향렬자를 제정한 가문이 없다는 것은 개선의 여지가 있다. 1894년 갑오개혁으로 신분·계급이 타파되어 모든 남성이 향렬자를 사용하고 있지만, 아직도 여성은 8촌 이내 최소 가문에서 일부만 향렬자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시대적 흐름과 전혀 맞지 않다.

여섯째, 향렬자는 융통성과 개방성이 있다. 한 대에 같은 유형 혹은 다른 유형의 대동 향렬자를 두 종류 이상 제정하여 선택의 기회를 넓힌 가문도 많고, 파 혹은 소파의 소종중이 대동 향렬자와 다른 별도의 향렬자를 사용하기도 한다. 또한 대동 향렬자 유형을 변경한 가문도 있고 합의만 되면 언제든 변경도 가능하다. 궁극적으로 향렬자의 사용을 강제하지 않는 융통성과 개방성을 갖고 있으므로 향렬자는 항상 개선의 여지도 갖고 있다.

2. 향렬자의 향후 전망

18세기 후반부터 시작된 동성동본 대동 향렬자 제정 전후인 1894년 갑오개혁으로 종래의 신분·계급이 타파되고 1909년 민적법(民籍法)이 시행되면서 모든 국민이 성(姓)과 본관(本貫), 이름을 신고하도록 법제화하여⁵³⁾ 세 글자 한자 이름을 갖게 되었다. 이 당시 유성층(有姓層)이었던

53) 이수건, 『한국의 성씨와 족보』(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1), 334쪽.

중층과 하층은 가문의 명문화를 통해서 신분 상승을 꾀하였고, 상당수였던 하층과 천층의 무성층(無姓層)은 신고만으로 성을 갖게 되자 신분 상승의 욕구가 발생되었다. 하층과 중층의 상층 지향과 폐지된 신분을 계속 누리려는 상층 때문에, 상층 가문의 전유물이었던 족보를 모두가 갖기를 희망하면서 발간은 급증했다.

늘어난 족보 편찬과 함께 대동 향렬자 제정 후 출생아 작명이나 개명(改名)으로 가문의 향렬자 사용이 증가한 것은 물론이고, 상층 지향의 중·하층이 상층 가문의 족보에 등재하기 위한 신분 세탁 개명도 향렬자 사용 증가에 일조했다. 일제강점기와 광복 이후 불어닥친 서구화 속에서도 우리의 가문 중시와 상층 지향은 계속되어 향렬자는 우리 이름 두 글자 중 한 글자로 확고하게 자리를 잡게 되었다.

향렬자 사용 증감 현황을⁵⁴⁾ 청송심씨(靑松沈氏) 내금위공파(內禁衛公派)가 2016년에 발간한 족보로 살펴보면⁵⁵⁾, 1940년대 88.6%, 1950년대 87.9%가 향렬자를 사용하여 이름 두 글자 중 한 글자로 자리잡은 것이 확인된다. 그러나 1960년대부터 향렬자 사용이 급격히 줄어들어 1960년대는 70.8%, 1970년대 50.5%, 1980년대 48.6%, 1990년대 43.0%이고, 심지어 2000년대는 23.1%만 향렬자를 사용하였다. 또한 풍양조씨 입재공파(立齋公派)를 보면⁵⁶⁾, 청송심씨 내금위공파에 비해서 향렬자를 많이 사용하였지만 1940-1950년대에 비해서 1960년대부터 향렬자 사용이 줄어든 것은 마찬가지이다.

표6- 청송심씨 내금위공파 향렬자 사용 증감 현황

연도	사용(명)	미사용(명)	사용(%)	미사용(%)
1941-1950	171	22	88.6	11.4
1951-1960	246	34	87.9	12.1
1961-1970	213	88	70.8	29.2
1971-1980	159	156	50.5	49.5
1981-1992	126	133	48.6	51.4
1991-2000	104	138	43.0	57.0
2001-2010	31	103	23.1	76.9
합계	1,050	674	60.9	39.1

54) 조사 가문의 인터넷 족보에 의해서 해당 기간 남자 출생자의 향렬자 사용 여부를 조사했다.

55) 청송심씨내금위공종회(csshimng.com) 「인터넷 족보」, 2017년 8월 1일 검색 참조.

56) 오작당(ojakdang.com) 「인터넷 족보」, 2017년 8월 2일 검색 참조.

표7- 풍양조씨 입재공과 항렬자 사용 증감 현황

연도	사용(명)	미사용(명)	사용(%)	미사용(%)
1941-1950	73	1	98.6	1.4
1951-1960	97	8	92.4	7.6
1961-1970	101	15	87.1	12.9
1971-1980	73	22	76.8	23.2
1981-1992	43	10	81.1	18.9
1991-2000	14	5	73.7	26.3
2001-2010	8	6	57.1	42.9
합계	409	67	85.9	14.1

1962년 1차 경제개발계획이 시작된 후 산업화·도시화가 본격화되면서 빈곤에서 벗어나고 공동체인 가문을 중시하는 전통적 관념이 약해지면서 개인이 우선시된다. 또한 1962년부터 시작된 가족계획으로 출산율이 떨어지면서 더욱 소중해진 출생아에게 이미 정해진 성과 항렬자를 제외한 글자만으로 관심이 높아진 좋은 이름 작명에 부족함과 제약을 느끼게 되면서 1960년대부터 항렬자 사용은 줄어들기 시작한 것이다.

2012년 서울, 광주, 목포 학생을 중심으로 한 선행연구에서 항렬자 사용은 35.5%, 미사용은 64.2%로 사용하지 않는 학생이 28.7% 높았다. 향후 항렬자 역시 사용하겠다 32.3%에 비해서 사용하지 않겠다가 53.2%로 20.9%나 높았다.⁵⁷⁾ 부모까지 조사하면 항렬자를 고려한 작명 찬성률이 부모는 44.5%이나 학생은 23.3%로 21.2%가 낮아서 항렬자를 점차 사용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했다.⁵⁸⁾ 항렬자 사용은 감소 추세이나 학생의 32.3%가 향후에도 항렬자를 사용하겠다고 밝혔으며, 학생이 부모에 비해서 항렬자 고려 작명 찬성률이 20.8% 낮지만 학생이 부모가 되었을 때 변화될 가능성도 있다. 또한 여기에 가문을 중시하는 우리 민족의 전통 사상까지 고려하면 앞으로 항렬자가 점차 사라질 것이라는 선행연구 해석은 무리가 있다.

하지만 1990년 남녀 동등하게 개정된 상속법 및 2005년 가부장 의식과 차별의 대표적 사례였던 호주제 폐지 등의 제도 변화와 함께, 여성에게 넘어간 가족 내 의사 결정권 및 여아와 처가 선호 등 일부에서는 여성

57) 양명희, 「인명의 특징과 그에 대한 언어태도 연구: 서울, 광주, 목포, 거주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한국어학』 제55집(2012), 248-258쪽.

58) 양명희·강희숙·박동근(2013), 앞의 논문, 195쪽.

상위가 이미 정착된 것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신(新) 모계사회(母系社會) 도래까지는 검토하지 않더라도 부계 친족 최대집단인 동성동본 가문 의식과 소속감은 줄어들었고 향후에도 줄어들 것은 예견되는 추세이다. 따라서 부계 친족집단 가문의 이름으로 불리고 좋은 이름 작명에도 제약이 많은 항렬자의 사용은 앞으로도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V. 맺음말

항렬자는 신라 말 10세기 초반 왕족부터 형제를 나타내는 표시로 자연 발생적으로 생성되어 상층·중층·하층의 순서로, 4촌과 6촌을 거쳐서 17세기 초반을 전후하여 8촌까지 확대되었다. 18세기 후반부터 대동 항렬자를 만들어 족보에 기록하면서 최대 가문인 동성동본까지 사용 범위도 확대되었다.

항렬자 유형도 자연 발생적으로 가문별로 생성되어 체계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 16세기 말에 오행상생법 유형으로 정착하였고, 오행상생법 유형 이외에도 친간, 지지, 숫자, 친간지지 등에 의한 음양순환법과 기타 유형도 있다. 인구수 200대 가문 중 91.5%인 183가문이 오행상생법 유형으로 대부분이고, 16가문 8.0%가 음양순환법, 1가문 0.5%가 기타 유형의 항렬자로, 세 유형 모두 가문의 화합과 번성의 의미를 담고 있다. 배정 원칙은 전후 1대 순환이 109가문 87.9%로 보편적이고 전후 2대와 10대 순환이 4가문 3.2%, 뒷자만 계속되거나 불규칙적인 비순환 가문이 11가문 8.9%를 차지한다.

대동 항렬자 제정 전후인 1894년 갑오개혁과 1909년 민적법 시행으로 모든 국민이 세 글자의 한자 성명을 갖게 된 후에도 상층 지향 및 가문 중시로 항렬자 사용은 계속 증가했다. 그러나 1960년대부터 산업화·도시화가 본격화되면서 빈곤에서 벗어나고 공동체인 가문 의식이 약해지면서 개인주의가 강해지고 감소한 출산율로 더욱 소중해진 출생아에게 한 글자만으로는 좋은 이름 작명에 제약을 받으면서 항렬자 사용은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 최근 일부에서는 여성 상위가 정착되고 부계 친족집단인 동성동본 가문 의식도 계속 감소하고 있으므로 항렬자 사용은

앞으로도 계속 줄어들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향렬자는 친족 최대집단인 동성동본 가문의 화합과 번성을 담은 좋은 의미가 있고, 사용만으로도 가문과 세대까지 본인을 홍보할 수 있는 수단도 된다. 또한 1,000년 이상 역사를 가진 전통문화 유산이기에 이미 검증된 향렬자를 우리의 작명에 활용할 필요성도 있는 것이다.

상층 신분의 표지로 가문의 화합과 번성을 담은 가문의 통제 시스템으로 이름 두 글자 중 한 글자로 자리 잡았던 향렬자가 좋은 이름 작명에 제약이 되고 시대 흐름도 읽지 못하여 사용이 감소하였다. 하지만 융통성과 개방성으로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으므로 향렬자 사용 활성화를 위해서 두 가지 대책을 제안한다.

첫째, 여성의 대동 향렬자 제정이 필요하다. 여성 인권이 존중되는 시대적 흐름과 맞지 않는 남성 위주의 향렬자만 존재한다면 향렬자 사용의 절반을 이미 포기한 것이므로 여성의 대동 향렬자 제정은 당연하다. 여성에게 적절한 대동 향렬자 제정을 통해서 최소 가문에서만 사용되는 여성의 향렬자를 친족 최대집단인 동성동본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보명(譜名)의 사용을 장려하고 확대해야 한다. 소중한 자식의 좋은 이름 작명에 어려움이 있는 향렬자 사용만 강요할 수는 없다. 향렬자로 작명한 이름을 관명으로 사용하면 더욱 좋겠지만 여의치 않으면 족보에 등재하는 보명으로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태명(胎名), 아명(兒名), 관명(官名), 교명(教名), 자(字), 호(號), 택호(宅號), 시호(諡號) 등 다른 이름 종류와 같이 보명을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사용한다면 향렬자의 장점을 살리면서 향렬자 사용의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끝으로 전체 가문의 일부인 200대 본관 향렬자만 조사하여 유형을 분류하고 배정 원칙을 조사한 점을 비롯하여 기원과 전개 과정, 유형 정립, 향후 전망 등에서 일부의 특정 가문만 조사한 후 일반적으로 해석한 점 등은 이 글의 한계점인데 앞으로 이를 보완해나가고자 한다.

참 고 문 헌

1. 1차 자료

『高麗史』, 『成宗實錄』.

『광산김씨족보』(1957), 『밀양박씨세보』(1923), 『여흥민씨계보』(1973), 『영일정씨세보』(1872) 『인천이씨족보』(1765) 『한산이씨세보』(1958) 등 200대 본관 가문 족보 다수.

2. 단행본

김만태, 『한국 성명학 신해』. 좋은땅, 2016.

_____, 『명리학강론』.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2017.

신라김씨이천년편찬위원회, 『신라김씨이천년』. 신라김씨이천년편찬위원회, 2009.

윤병준, 『한국씨족항렬고(韓國氏族行列表)』. 회상사, 1987.

이수건, 『한국의 성씨와 족보』.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1.

조남호, 『주희, 중국철학의 중심』. 태학사, 2004.

중앙일보사, 『한국성씨대백과 성씨의 고향』. 중앙일보사, 2002.

통계청, 『2015 인구주택총조사』. 통계청, 2016.

3. 논문

고민정, 「조선 후기 입후 방식과 계후자의 항렬에 관한 연구」. 『태동고전연구』 제34집, 2015, 157-181쪽.

권기중, 「조선 후기 족보의 인적 구성과 특징: <달성서씨족보(1769)>를 중심으로」. 『사림』 제43호, 2012, 215-235쪽.

김만태, 「현대 한국사회의 이름짓기 방법과 특성에 관한 고찰: 기복신앙적 관점을 중심으로」. 『종교연구』 제65집, 2011, 151-186쪽.

송하순, 「성씨별 항렬자 연구」. 공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1-81쪽.

양명희, 「인명의 특징과 그에 대한 언어태도 연구: 서울, 광주, 목포, 거주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한국어학』 제55집, 2012, 239-266쪽.

양명희·강희숙·박동근, 「인명에 대한 태도 연구: 고등학생 자녀와 그 부모세대를 중심으로」. 『사회언어학』 제21권 제3호, 2013, 181-203쪽.

양종국, 「중국인 학자가 본 <신안주씨세보(新安朱氏世譜)>」. 『역사와 역사교육』 제5호, 2000, 193-206쪽.

우인섭, 「항렬자고」. 『국어교육』 제23-제25 합병호, 1975, 159-164쪽.

윤병준, 「성(姓)으로 본 한국: 한국씨족항렬고(韓國氏族行列表)」. 『세대』 제2권 통권 11호, 1964, 202-215쪽.

이복규, 「한국인의 이름에 대하여」. 『온지논총』 제16집, 2007, 363-388쪽.

이은용, 「강화학파(江華學派)와 초기 기독교 연구」. 『양명학』 제20호, 2008, 325-354쪽.

장희홍, 「〈양세계보(養世系譜)〉를 통해 본 조선시대 내시가의 가계 계승」. 『역사민속학』 제22호, 2006, 243-274쪽.

정성화, 「조선후기 안동 상층 향리의 향직계승과 존재양상」.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1-61쪽.

차장섭, 「조선시대 족보의 편찬과 의의: 강릉김씨 족보를 중심으로」. 『조선시대사학보』 제2집, 1997, 33-79쪽.

차재은, 「17-19세기 대구 호적 인명에 대한 사회언어학적 고찰: 남성 인명의 계층성을 중심으로」. 『우리어문연구』 제56집, 2016, 411-448쪽.

최재석, 「조선시대의 족보와 동족조직」. 『역사학보』 제81집, 1979, 37-79쪽.

3. 사이트

고령신씨대종회(goshin.or.kr).

국가통계 포털(kosis.kr).

오작당(ojakdang.com).

청송심씨내금위공종회(csshimng.com).

국문 초록

항렬자는 친족집단 간의 상하 세대 관계를 나타내기 위하여 각 가문에서 미리 정하여 공통으로 사용하는 이름 두 글자 중의 한 글자이다. 신라 말 10세기 초반 왕족을 중심으로 형제간에 자연 발생적으로 생성되어 상층·중층·하층으로 4촌과 6촌을 거쳐서 17세기 초반에 8촌까지 확대되었고, 18세기 후반부터 대동(大同) 항렬자를 만들어 동성동본까지 확대 사용하였다. 형성 과정에 중국 영향을 받아서 16세기 말에 정착한 오행상생법과 음양순환법, 기타 유형으로 구분되나 오행상생법이 대부분이고 음양순환법과 기타 유형은 소수이다. 세 유형 모두 가문의 화합과 번성의 의미를 담고 있으며, 전후 1대 순환이 보편적인 배정 원칙이다.

갑오개혁과 1909년 민적법(民籍法)으로 세 글자 성명을 갖게 된 후에도 상층 지향과 가문 중시로 항렬자 사용은 증가했다. 그러나 1960년대부터 빈곤에서 벗어나고 가문 의식이 약해지면서 개인주의가 강해지고 줄어든 출생아의 좋은 이름 작명에 제약이 되어 1960년대부터 항렬자 사용은 감소하였다. 최근 여성 상위가 일부 정착되고 특히 부계 친족집단인 동성동본 가문 의식도 더욱 약해지고 있으므로 항렬자 사용은 앞으로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항렬자는 1,000년 이상 우리와 함께한 전통문화 유산이다. 상층 신분의 표지(標識)로 가문의 화합과 번성을 담은 항렬자가 가문의 통제 시스템으로 자리를 잡았으나 작명에 제약이 되고 시대적 흐름도 읽지 못하여 사용이 줄어들고 있지만, 융통성과 개방성으로 항렬자 사용의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다. 우리 전통문화인 항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여성 대동 항렬자 제정과 보명(譜名) 사용 장려 및 확대 대책이 필요하다.

투고일 2017. 9. 10.

심사일 2017. 9. 28.

게재 확정일 2017. 11. 27.

주제어(keyword) 항렬자(行列字, Hangnyeolja, a generation character), 항렬(行列, Hangnyeol, generation name), 성명(姓名, Full name), 이름(Given name), 작명(作名, Naming), 음양오행(陰陽五行, Yin-yang and the five elements of the universe)

A Study on Hangnyeolja of Full Name: Focused on the Development Process and Type of Hangnyeolja

Kwon, Ik-ki · Kim, Man-tae

Hangnyeolja(行列字, a generation character) is one of the two characters of a given name, predetermined and commonly used in each family in order to represent the relationship between upper and lower generations among kinship groups. Spontaneously generated between siblings around the royal family from the late Silla dynasty to the early 10th century, it was extended from first and second cousins to third cousins in the early 17th century through the upper, middle, and the lower class. Daedong Hangnyeolja(大同 行列字, a generation character of the same surname and the same family origin) was created in the late 18th century and was expanded to the same surname and same family origin(同姓同本). They are divided into five-elements co-prosperity method(五行相生法), yin-yang circulation method(陰陽循環法), and other types. Formed under the influence of China, the five-elements co-prosperity method settled at the end of the 16th century. Most of them are based on the five-elements co-prosperity method, and yin-yang circulation method and other types are less used. All three types carry the meaning of harmony and prosperity of the family. It is a universal principle that Hangnyeolja circulates every generation.

Even after Gapo reform(甲午改革) and Minjeokbeob(民籍法, civil registration law) in 1909 granted three-character names to everyone, the use of Hangnyeolja increased with aspiration towards the upper class and emphasis on family lineage(家門). Since the 1960s, however, the use of Hangnyeolja has decreased because individualism has strengthened, loyalty to family lineage(家門意識) has weakened, and because it constrained the “good naming” of the fewer newborn babies. Recently, female dominance is partly settled and especially, loyalty to family lineage, which is based on paternal kinship groups is weakening. Therefore, the use of Hangnyeolja is bound to be lower in the future.

Hangnyeolja has been a traditional cultural heritage of ours for over a thousand years. As a sign of upper class status and carrier of the harmony and prosperity of the family, Hangnyeolja was settled as a governing system of the family. But its usage is decreasing because it constrains naming and does not reflect the changing times. However, renewed active use of Hangnyeolja can be expected due to flexibility and openness. In order to activate Hangnyeolja which is our traditional cultur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Female Daedong Hangnyeolja, and encourage and expand the Bomyeong(譜名, family lineage name).